

현 불 뉴스

평상스님 금산사종회의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도영)는 지난 14일 해광스님 후임으로 제11대 종회의원에 평상스님을 보궐 선출했다.

지리산서 고흔 천도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지난 16일 지리산 피아골에서 서울 포항을 비롯 전국 각지부 회원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영령 및 유주주교혼을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에 인도명예영사관

지난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에 인도명예총영사관이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사상근인도대사 및 성오 범어사주지스님 등이 참석, 총영사관 개관을 축하했다.

관음사 합창단 발표회

서울 사당동 관음사(주지 종하)는 부설 합창단 '보리사합창단' 창단 10주년 찬불가 발표회를 오는 29일 저녁 7시 서초주민회관에서 갖는다. 이번 음악회에는 공옥진, 김영익씨 등이 특별출연한다. (02)582-8809

광주 제등행진 시상

광주불교사망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20일 장성 백양사에서 사망연합회 스님들을 비롯 지역불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진 시상식과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정광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전하며 자살예방고등학교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부불중학생 남산순례

부산불교중학생지도 위원회(회장 서정락)는 지난 9일 부산 사내 중학생 불교학생회 회원 3백10명과 지도교사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남산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유치원교사 연수회

대한불교유아교육연합회(회장 영담)는 8월3일부터 5일까지 김천 직지사서 제23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부처님 마음 어린이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불교교재 활용법, 유아의 언어표현과 지능발달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남양주 봉영사 약수터 불연독서다원

“약수마시고 불서도 읽는다” 주민들 ‘마음의 쉼터’

약수도 마시고 불서도 읽으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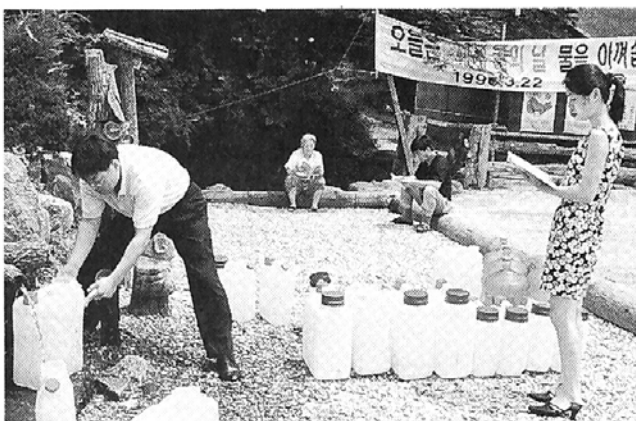
남양주군 진접읍 봉영사(주지 철안) 일주문 옆의 약수터와 불연독서다원(원장 이승민)이 그곳. 인근 주민과 청소년들은 물론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이 약수터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4백여명에 이른다.

봉영사 신도회가 주지 철안스님과 뜻을 모아 지난 1월에 개관한 불연독서다원은 불서와 교양서적 2천5백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헌 목재와 통나무비늘 등을 이용해 지은 다원은 40여평으로 봉영사약수보존회 회원들과 인근 광동중·고생 지역주민들에게 육체와 마음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약수를 따러 오는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서를 빌려 읽고서 진통차의 향취에 빠지기도 한다. 6백여평의 넓은

마당은 가족운동장으로 쓰인다.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을 부처님과 인연지어 주기 위해 도서실을 꾸민 것인데 인기가 높아 이제는 포교 현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철안스님은 “신도들이 책을 모으고 문체부에서도

6백여평 마당 가족운동장 활용

1천2백여권의 도서를 기증해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연독서다원은 남양주 시문학회의 시낭송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신행 상담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약수터와 다원을 아끼는 사람들로 구성된 봉영사 약수보존회 회원은 6개월만에 1천2백여명으로 늘었다. 회원들은 약수



◇봉영사 약수터 불연독서다원은 지역주민의 마음과 육체의 쉼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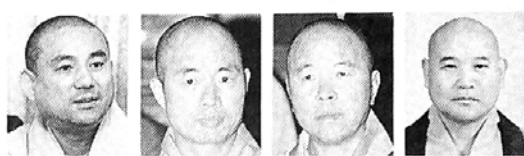
일 짚을 찾아 기도하고 약수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 대웅전 신축공사 관계로 연못 위에 설치한 임시법당의 마루 밑에 사는 수백마리의 물고기에 먹이를 주고 생일때 밥상을 하는 것이다. 법당을 참배한 회원들은 “부명 유리를 통해 물고기들을 보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다 보면 모든 생명이 다 존귀함을 느끼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남양주=김원우 기자

한중일 불교교류 정부협조 요청

종단협이사회 서울대회 일정등 실무작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주 조계종총무원장)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서울대회’ 기간동안 대통령을 비롯 문체부장관, 서울시장등 정부고위관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달 19일 연등축제행사장에서 전개한 북한동포돕기 지부의 할 말모임 6백여명민원을 관계단체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해침스님 ◇성관스님 ◇봉관스님 ◇신원스님
조계종 부장급인사
총무-해침 문사-성관
사업-봉관 호법-해담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총무부장에 해침스님(전 호법부장)을 임명하는 등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사회부장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사업부장 봉관(역경사업진흥회 상무이사), 사서실장 신원(회계사 부주지)스님, 21일자로 호법부장에 해담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보문사 삼존불 봉안

설법전 중창불사 진행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인 강화보문사(주지 원우)는 지난 16일 대웅전 신축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 점안 및 용왕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 보문사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한편 보문사는 금년말 준공예정인 5백평 규모의 설법전건립을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청정운동” 광주시청 청정운동 실천대회가 지난 18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연에서 강건기교수(전 북대)는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실천운동으로 오게 지키기”를 주창했다. 대진(28일 오후7시) 논산대회(30일 오전10시)는 우송예술회관과 연무대법당에서 열린다. <광주=주홍직 지사장>

“청년불자 사찰과 갈등” 60%

대불청 청년의식 조사 “불교귀의후 자기변화” 100% 긍정

전국청년회원 10명중 6명은 사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갈등의 요인으로는 청년의 지원문제(44%), 지도법사문제(28%), 사찰사용문제(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년불자들이 한 국불교를 접어지고 나갈 차례기의 주역이란 점은 감안할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반)가 지난 15일~16일까지 수원전민대학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발표한 ‘불교청년의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의 포교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48%에 달하는

청년불자들이 한명도 포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84%가 물어오거나 포교하고 싶어도 물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년불자들이 기복불교의 신앙으로 일관했던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교리이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포교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1%가 전예 비해 완전히 달라졌다고 답했고 89%에 해당하는 회원들도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변화의 내용으로는 마음가짐(53%), 대인관계(23%), 생활습관(21%), 기태(35)순으로 응답했다. 또 청년의 활동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은 문화행사(39%), 법회(36%), 뒤꿈치(15%), 소모임 참여(10)순으로 응답했다. 문화재전문가 추천 문체부, 경주노선 자문역

문화체육부는 지난 20일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의 조사, 자문을 위한 문화재관련 전문가로 한영삼(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이선복(서울대 교수), 김성철(영남고고학회 회장), 김석철(C기반대표), 김병모씨(전 한국고고학회 회장) 등 5명을 건설교통부에 추천했다. 건교부는 새 경주노선 선정에 관한 자문위원단을 분야별로 위촉중이다.

해인골프장 건설 ‘다시 수면위로’

서울고법 ‘문체부 승인취소 부당’ 판결...교계 헌법소원 불사

문체부가 내린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96년 7월15일)이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문체부와 불교계 문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악화된 환경문제로 환경의 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정서나 환경정책과도 역행하는 판결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 김경일)는 지난 19일 (주)가야개발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소송에서 ‘국민정서와 자연환경보호같은 추상적인 사유로 골프장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가야개발 측은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을 적극 재개할 전망이다. 이에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조계종 범종단대책위, 해인사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고령군대책위, 덕곡면투쟁위는 지난 20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고법판결은 정부의 환경보존의지의 실추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하고 “해인골프장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판결 확정문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7월3일 이전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5개 대책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 42억여원 현대건설 집행보류 ‘갈등국면’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로 현대건설이 지급키로 했던 42억6천만원의 현대건설이 집행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다시 조계사와 현대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라며 “조계사 복구비 42억6천만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회사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복구비 지급을 사실 거부할 경우 법적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마음 마음 설명하는 심성과학
모든 과학은 심성과학입니다. 의학도 천체물리학도 마음도리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면 과학은 그냥 물질과학이 되겠지만 안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된다면 과학이 진짜 과학이 되려면 심성과학이어야 합니다. (한마음유전)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북한산『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 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명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상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융성을 기도했던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녕과 불국정도를 앞 당기는 큰 발원을 세우고자 하오니, 청정한 신심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큰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월
주지 석종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문의전화 : (02)353-5016, 353-4924.